

## 보이스 오브 부산 (Voices of Busan)

부산비엔날레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하는 '보이스 오브 부산'은 부산 시민 혹은 부산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오디오북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2020부산비엔날레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Words at an Exhibition - an exhibition in ten chapters and five poems)는 부산 혹은 대도시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과 시로부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시를 위해 집필된 소중한 작품을 여러분의 특별한 목소리를 통해 오디오북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제작된 오디오북은 9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시기간 내 부산비엔날레와 부산영어방송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만 18세 이상 부산 시민 또는 부산 거주 외국인 누구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29일 ~ 6월 18일 (21일간)
- 모집인원 : 20명(한국어 10명, 영어 10명)
- 신청방법 : 구글폼 링크 작성 → <https://forms.gle/34yGFxGVTHwvmKzz9>
- 일 정

내용	일정
1차 합격 발표	2020년 6월 23일
2차 오디션	2020년 6월 27일
최종 합격 발표	2020년 6월 30일
교육 및 녹음	2020년 7월 중

※ 녹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여혜택 : 사례비(10만원), 오디오북 참가증서, 2020부산비엔날레 티켓 2매(24,000원 상당), 2020부산비엔날레 문집과 도록(크레딧에 참여자 성명 기재) 각 1권 증정

### ■ 안내사항

- 녹음 전 성우 교육 참석은 필수입니다.
- 녹음 파일 형식은 mp3 또는 WAV 파일로 제한하며, 휴대폰 녹음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중복 또는 변경 제출이 어려우므로, 녹음파일은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051-503-65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020. 05. 29.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 ■ 대본

※ 영어와 한국어 대본 중 1개를 선택해주세요

### <영어 대본>

Hello. My name is OOO applying for Voices of Busan.

At the hotel, the security chief was waiting for them. "He exited at 11:22 a.m. this morning and never returned. He was basically packed and ready to go. It seems he received a phone message the day before. I'm sorry but no one remembers taking it, only the front desk worker does recall it waiting for him."

He gave them the contents of the writer's safe: Seventy euros in cash. And a red-covered passport, imbued with a golden harp.

"And give us the key. We'd like to go up alone."

The elevator was interminable. "The Wikipedia printout includes a disclaimer I've never seen before," Dae-gwon said. "'The topic of this article may not meet Wikipedia's notability guideline for biographies.' Odd, that if he really is the author of at least five books, a number of film-scripts, a professor, and more. Claims to have a ph. D. too."

### <한국어 대본>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OOO입니다.

호텔의 보안 책임자가 형사들을 맞이하였다. “손님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나가서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짐 싸고 떠날 준비는 완료한 상태였어요. 전날 전화로 메시지를 하나 전 달받은 모양인데 죄송하게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메세지가 온 사실만 프런트 직원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가 작가 방 금고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건넸다. 현금 70유로와 황금 하프가 새겨진 붉은 색 여권.

“열쇠 하나 주시죠. 저희끼리만 올라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끝없이 올라갔다. “이 위키백과 자료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대권 형사가 말했다. “‘본 글의 주제는 위키백과의 전기 관련 지침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니 이상한데? 만약 그가 정말 5권 이상의 책과 영화 대본을 낸 작가이자 교수라면 말이야. 박사학위도 있다고 나와 있군.”